

# 새 세기 로골화되고있는 일본반동들의 우주군사화책동

리 일 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주변정세에서 주목되는것은 일본이 군국화의 길로 나아가고있는것입니다.》(《김일성전집》 제79권 465페이지)

21세기를 또다시 《대동아공영권》을 실현하기 위한 침략과 략탈의 세기로 만들어 인류를 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으려는 일본반동들의 군국화는 아시아와 세계평화에 대한 엄중한 도전행위로 되고있으며 그 위협은 새 세기에 들어와 더욱 커가고 있다.

날을 따라 강화되고있는 일본반동들의 군국화는 새 세기 우주를 군사화하여 저들의 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책동에서 그 진면모가 낱알이 드러나고있다.

새 세기에 들어와 우주개발에 대한 인류의 지향은 더욱더 강렬해지고있으며 나라와 지역, 국제적범위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경쟁적인 우주개발사업이 추진되여가고 있다.

이러한 우주개발사업은 모두 인류의 평화번영과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이와 배치되는 행위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일본은 우주개발의 국제적추이를 교묘하게 리용하여 저들의 군국화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우주군사화책동을 본격적으로 다그치고있다.

물론 일본의 우주군사화책동이 오늘에 와서 시작된것은 아니다.

지난 시기 일본은 우주를 평화적목적에 리용한다는 립장을 표방해오면서 1967년에 우주의 평화적리용에 관한 유엔의 우주조약을 비준하였으며 1969년에는 우주리용을 《평화적목적으로 한정한다.》는 법안까지 채택하였다.

이러한 일본이 앞에서는 우주의 《평화적리용》을 떠들면서 뒤에서는 《자위대》의 무장장비들을 현대화하는것과 함께 우주공간을 군사적으로 지배하는것을 전략적목표로 내세우고 우주를 군사화하기 위한 책동을 교활하게 추진시켜왔으며 새 세기 더욱 본격적으로 감행하고있다.

새 세기 로골화되는 일본반동들의 우주군사화책동은 무엇보다먼저 우주공간에 대한 군사적리용을 허용하는 우주관련법안들을 채택한데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2008년 5월 자민당, 공명당, 민주당이 공동으로 제출한 우주공간에 대한 군사적리용을 허용하는 《우주기본법》을 국회에서 채택하였다.

1969년에 채택된 법안과 비교해보면 당시에는 우주개발원칙을 《비군사》로 규정하였던것을 새로운 《우주기본법》에서는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는것을 필수적인것으로 제시하였으며 일정한 범위에서 《방위》의 목적까지 추구하였던것이다. 이것은 일본의 우주개발원칙이 《비군사》로부터 《비평화》에로 전환되었으며 막혀있던 우주군사화예로의 길을 드디어 열어놓았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일본반동들은 2008년 8월 《우주기본법》을 리행하기 위한 조치로서 수상을 본부장으로 하는 우주개발전략본부를 정부내에 설치하였으며 2009년 1월에는 방위목적의 우주리용을 허용하는 《우주개발리용에 관한 기본방침》이라는것을 작성, 발표하였다.

2009년 6월 우주개발전략본부는 동북아시아지역의 정세가 더욱 긴장해고있는 조건에서 정보수집위성의 연구개발과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수집능력을 강화할데 대한 내용을 담은 《우주기

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그 무슨 《안전보장》면에서의 《우주의 역할확대》를 운운하면서 우주를 군사적목적에 본격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열거하였다. 특히 주목되는것은 지난 시기에는 감히 입에 올리지 못하였던 조기경계위성도입문제를 《검토》요 뭐요 하면서 교묘하게 내돌리다가 정식 계획에 쏘아박아넣은것이다.

조기경계위성으로 말하면 일본이 미국과 공모결탁하여 구축하고있는 미싸일방위체계의 《눈》으로서 그것을 갖추게 되면 우주공간을 무대로 다른 나라들을 선제공격할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는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 내용과 목적에 있어서 극히 야심적이고 위험한 《우주기본계획》의 작성은 범죄적인 우주군사화책동을 합리화하는 법적, 제도적장치를 마련하여 임의의 순간에 우주를 재침의 활무대로 리용하려는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일본반동들의 책동의 연장이다.

2012년 6월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의 활동을 《평화적목적》이라고 규정한것을 삭제한 새로운 《우주기구법》이 일본참의원 본회의에서 다수찬성으로 성립되었다. 개정된 《우주기구법》에 의하면 우주기구가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한 인공위성개발 등에 관여할수 있는데 이것은 우주의 군사적리용을 허용한것이였다.

이에 대하여 서방출판보도물들까지도 《일본이 우주군사화와 관련한 법안을 채택》, 《일본이 지구에서뿐만아니라 우주군사화에 박차를 가하며 미국의 우주미싸일방위체계수립에 합세할수 있는 조건 마련》, 《드디어 일본이 지난 수십년간 전패국으로서 군사화억제속에서 벗어나 우주에까지 진출할수 있는 법적, 제도적조건을 마련》 등 일본반동들의 우주군사화책동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주의 《비군사》리용원칙이 《안전보장》의 간판밑에 군사분야어로 전환되게 되여 일본의 우주군사화가 본격적인 추진단계에 들어서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새 세기 로골화되는 일본반동들의 우주군사화책동은 다음으로 그 누구의 《위협》으로부터의 《방위》에 대하여 운운하면서 군사적목적의 위성들을 계속 쏘아올리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일본반동들은 우리 공화국이 1998년 8월에 평화적우주개발의 일환으로 진행한 인공지구위성발사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턱대고 미싸일발사라고 우겨대면서 국내외적으로 저들의 군사위성발사의 구실을 합법화하려고 책동하였다.

일본반동들은 《북조선의 미싸일위협》의 현실적 《목적》과 그로부터의 자체 《방위》를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면서 군사위성발사의 합법성을 우리와 직결시켜놓고 정찰위성개발과 미싸일방어체계구축에 열을 올리였다. 그전까지 미국에 정보수집을 의존하던 일본반동들은 자체의 정찰위성제작에 박차를 가하여 2003년에 첫 정찰위성을 발사하였다.

이 시기까지만 하여도 일본의 우주개발은 《법안》에 의하여 《평화적목적》에 한정되어있었으므로 군사위성발사와 같은 실천행위는 도저히 불가능한것으로 되어있었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군국화본색을 빼앗지 드러내놓았던것이다.

일본반동들의 이러한 책동은 이미전에 벌써 우주를 군사화할데 대한 문제가 일본정부의 정책으로 내정되어있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이를 계기로 일본의 우주개발은 《평화》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그 무엇에도 구속됨이 없이 군사화의 길로 질주하게 되었다.

그후 일본반동들은 2003년 11월과 2006

년 9월, 2007년 2월에 연속적인 군사위성 발사를 감행하였으며 2009년 11월에는 5억 6천만US\$ 이상의 자금이 총당된 4세대정찰위성을 발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내각관방장관이었던 히라노는 《정부로서는 이 위성의 운영을 통해 일본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정보수집능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떠들어대었다.

2010년 9월 미국의 GPS(전지구위치측정체계)위성의 약점을 보충한 군사위성이, 2011년 9월 우리 공화국의 군사시설 등을 감시하는 정보수집위성이, 2011년 12월 안전보장에 관한 정보 등을 수집하는것을 목적으로 한 군사위성이 련이어 발사되었다.

일본반동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2012년 12월 우리의 평화적위성발사를 유엔안보리사회에 회부하고 제재결의안조작에 발벗고나서는 한편 이를 계기로 또다시 2013년 1월 정보수집위성을 쏘아올리는 일본 특유의 기질을 발휘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반동들은 앞으로 이 위성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는 경우 광학위성과 레이다위성이 각각 지구상의 특정지역을 하루에 한번이상 촬영할수 있는 위성체계가 실현된다고 하면서 정부는 일본의 안전보장과 위기관리에 만전을 가하기 위해 이 체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정보수집을 철저히 할것이라고 지껄이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일본반동들의 우주군사화책동이 매우 엄중한 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실증하여준다.

새 세기 더욱 본격화되고있는 일본반동들의 우주군사화책동은 세상사람들이 우려하고있는 일본의 군국화와 직접적으로 련결되어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새 세기 일본반동들의 우주군사화책동은 일본이 강행하고있는 군국화의 실천적 행위이다.

제2차 세계대전후 미제에 의하여 재생

재무장된 일본반동들은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기 위한 길에 또다시 뛰어들고있다.

새 세기에 들어와 더욱 로골화되고있는 일본반동들의 우주군사화책동은 지역정세를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고있으며 무력충돌을 몰아올수 있는 시한탄으로 되고있다.

일본반동들의 우주군사화책동은 침략전쟁의 담당자인 일본 《자위대》의 군사력을 더욱 강화하는 기회로 되고있다.

우주군사화는 필연적으로 군사력의 강화를 동반하게 되는것으로서 일본반동들에 의한 우주군사화책동은 일본 《자위대》무력의 강화를 가져온다.

새 세기 일본반동들의 우주군사화책동은 일본주민들에 대한 군국주의사상의 고취, 재침선동의 중요고리이다.

군국주의사상의 고취와 재침선동은 일본의 우주군사화책동과 뿔레야 뿔수 없는 불가분리의 문제이다.

그것은 일본의 우주군사화가 팽전시기에 일본이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하고 경제대국의 지위에 오르면서 점차 사회가 우경화됨에 따라 군국주의야망이 다시 되살아남으로써 산생된 문제이기때문이다.

일본사회의 군국화가 급속히 추진되면서 우주의 군사적리용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약화되자 일본지배층은 우주군사대국의 꿈을 실현할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타산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반동들의 우주군사화책동이 곧 군국주의사상의 고취, 재침선동의 직접적후과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새 세기 일본반동들의 우주군사화책동은 미제와의 적극적인 협력속에서 감행되고있다.

《태평양국가론》과 《안전보장》을 요란스럽게 떠들며 군사전략적중심을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정한 미국은 그 실현에서 일본이 관건적역할을 할것을 기대하고

---

있다.

사실상 일본이 전투무력보유와 전쟁금지를 규제한 《평화헌법》의 막뒤에서 《자위대》를 《방위》의 범위를 벗어난 공격형의 침략무력, 정규화된 재침무력으로 변모시킬수 있게 된것은 미국의 적극적인 뒤받침과 비호를 떠나서 절대로 생각할수 없다.

일본은 미국을 자기의 군사적안전과 령토완정의 유일한 담보국으로 여기고있으며 미국에 의존하여 재침야망을 기어이 실현하려 하고있다.

오늘 일본반동들의 로골화되는 우주군사화책동으로 하여 《대동아공영권》의 옛

꿈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일본의 제침위협은 더욱 커가고있다.

지난 세기 아시아나라들을 침략하고 인민들에게 전대미문의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전적을 가지고있는 일본은 그에 대해 성근하게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부정하고있을뿐아니라 재침의 길로 줄달음치고있다.

침략자가 있는 곳에서는 평화가 있을수 없다.

우리는 일본반동들의 우주군사화책동, 군국화책동에 경각성을 가지고 대해야 하며 과감한 투쟁으로 그것을 저지파탄시켜야 한다.